그대로의 잠을

그것은 진실도 허위도 아닌, 그러나 경험된 세계인 것이다. 어디까지나 감각(感覺)으로써 받아들여야 될 것이지, 형식 논리의 테두리 안에서 증명할 수는 없다.

우선 계절감(季節感)이다. 무슨 까닭인지 언제까지나 한여름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것도 검푸르게 무성한 나무들의 여름이 아니고, 그림자까지 빨아들일 듯 새하얗게 마른 모래사장을 내리쪼이는 폭양의 여름, 잠잠한 가운데 얼마든지 횡포할 수 있는 격정의 계절인 것이다. 어린 영호의 남저고리빛이 좀더 기이하게 보이려면, 그러한 격정으로 빛을 잃은 둘레가 있어야 되었기 때문인가.

영호는 유월 유둣날 한낮에 세상 빛을 보았다. 집 식구 생일도 미처 외지 못하는 주제에 그의 생일만은 새겨 두었던 까닭은, 단독으로 출산에 손을 빌려 준 최초의 영아였기 때문인지도 모르나, 그 밖에도 인상에 남을 만한 일이 없지 않은 것이다.

우선 그 집에 들어섰을 때 코를 찌르던 기름 냄새다. 불도를 숭상하는 집안이라 산고가 보일 때까지 유두 치레로 밀전병 부치고 지짐질을 한 탓이라고 아이 할머닌지 백발의 노파가 부채질을 해 주는데,

바람을 보내 주려는 것인지 기름 냄새를 흩으려는 것인지 어정쩡한 손놀림을 하던 것이 기억에 남아 있다.

산실에 들어가서 놀란 것은 산모가 중년을 훨씬 넘어 보이는 점이었다. 일찍 두었던 자녀를 여럿 잃은 후에 단산한 줄만 알고 있었던 끝이라, 무척 소중하고 기다려지고 있는 애긴 데다가, 노산이고 보니 조심스러워, 전 같으면 남들이 '산파(産婆)' 손만 빌려도 '죽은 파(芭)'는 아니고 '산 파(芭)'냐고 빈정대던 노인들도 서둘러 산파 의사를 부탁한 것이라고, 이것은 나중에서야 안 사단(事端)이었다.

때마침 일요일이어서 원장이 골프장으로 나간 뒤라, 마지못해 불려가기는 하였으나 마음이 놓이지가 않았다. 살벌한 군대 생활 몇 해에 사람이 죽어 가는 것만 보아 오던 끝이라, 새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여간 신기하고 불안한 일이 아니었다. 어지간히 생사에 초연할 수 있다고 자부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그렇다고 생각한 것에 지나지 않았던 모양이다. 따져보면 종말감(終末感)에 출발점을 둔 의식을 그렇게 착오했던 것일지 모르겠다.

하여튼 거북한 자리에나 앉아 있는 것처럼 얼떨떨하여, 익숙한 솜씨로 척척 준비를 하는 간호사가 옆에 없었던들 그만 뜨고 싶은 마음뿐인데, 바스스 장지문이 열리더니 이번에는 머리는 그리 세지 않았으나 끔찍할 정도로 주름이 누비질한 얼굴이 조심스럽게 이쪽을 보고 눈짓을 하였다. 나오라는 뜻으로 받고 대청으로 나가니까, 더러 남아 있는 이가 오히려 거추장스러워 보이는 입에 손을 대어 소리를 죽이고 아직 짬이 있는 것 같으니 좀 들어 보라고 속삭이며, 노리께하게 결은 화문석 위에 밀전병에 콩국, 오미자 화채와 자두를 곁들인 상이 놓여 있는 앞으로 끌어다 앉히는 것이었다. 이윽고 거듭 '유둣날'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영호의 생일날이 또렷이 새겨지게 된 것인지 모른다.

기이하게도 노인이 많은 집이었다. 장독간 옆에 잇대어 소소한 화단이 있는데, 그 앞에 흰 모시 고의 적삼을 입은 반백의 노인이 웅크

리고 앉아, 새하얗게 마른 모래땅에다가 조약돌로 무엇인가를 썼다가는 지우고 지웠다간 또 쓰고 하며 있었다. 어떻게 보면 무척 한가로운 모습이었으나 기실은 어쩔 수 없는 기대와 초조를 그렇게 달래고 있는 것이라고 짐작이 갔다. 애기 아버지라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어딘지 좀 기이한데, 더욱 이상한 것은 그런 모습들이 왠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 점이었다. 언젠지는 몰라도 먼저도 한번 본 일이 있는 아니 퍽 눈에 익기조차 한 광경이라고 느껴지는 것이다. 오정을 바라보는 폭양이 뜰의 노인의 그림자를 바짝바짝 그의 발 밑으로 오므라뜨리고 있는 것을 보고, 비로소 땀을 흘렸던 것을 깨달아 수건을 이마에 가지고 갔다. 그러나 마치 바짝 단 솥에 조금 남아 있는 물이 자글자글 졸아붙듯, 땀은 흐르기 전에 살 위에서 말라 버려, 이기지 않은 가죽처럼 까칠한 피부가 남의 살같이 느껴졌을 따름이었다.

그런 더위 속에서 첫 울음을 울린 영호는, 이제 어쩌다가 노상에서라도 마주칠라면 아이 보는 계집애 등에서 거의 떨어져 내릴 정도로 몸을 뒤로 젖히고 깨욱거리며 반긴다. 언제나 남저고리를 입히운 채——아이 보는 계집애도 같이 사귀어, 영호가 미처 이쪽을 보지 못하고 있기라도 하면 겨드랑 밑으로 애기의 얼굴이 가도록 가로 뉘어 업곤 "독 사아려" 하다가 "와아" 하며 알은 체를 시킨다. 그 계집아이가 품속에서 군밤을 꺼내 먹고 있는 것을 본 것도 한두 번이 아닌데, 어째선지 계절감은 여전히 한여름인 것이다. 마치 시간의 마디가 어긋나기나 한 것처럼.

그러나 그것보다도 짜장 기이하고 무서운 일은 따로 있었다.

미국 가 있는 누이의 둘째딸이 한복을 한 벌 해 보내 달란다고 같이 나가자기에 따라 나선 길에서였다.

째앵하게 개인 날이어서 모든 것의 그림자가 도려나 놓은 것같이 선명했다. 하얗게 소복한 누이는 폭 넓은 치마로 자기의 그림자를 살살 쓸며 걷고 있었다. 왠지 통행인이 보이지 않고, 길에 굴러 있는

조약돌이 내리쪼이는 햇볕을 받아 빤짝했다간 이내 곧 빛을 거두곤 하였다. 큰길로 갈리는 길목까지 왔을 때, 문득 담배 생각이 나서 옷주머니에서 백양을 하나 빼어 물고 붙인 후 그대로 앞서 걷는 누이의 뒤를 따랐다. 누이는 길에서까지 담배를 입에서 떼지 못하는 것이 불만이다. 여느 때 같으면 식사 후에 숭늉이 나오듯이 무슨 절차처럼 언제나 같은 표정과 같은 말이 나오는 것이다.

"온 늦게 배운 도둑 새벽 밝는 줄 모른다더니…… 정말 용굴뚝이야."

그리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빨리 하는 것이 버릇이었다.

그러던 그녀가 큰길에 들어선 채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윽고 곧 뒤를 따라붙은 아우에게 무슨 비밀이나 속삭이듯이

"얘! 얘로구나!"

하는 것이었다. 묻는 어조가 아니다. 단정(斷定)하는 어조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일은 거의 반사적으로 대답이 나왔다는 것이다.

"네, 바로 걔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놓고는 왠지 소름이 쫙 끼쳤다. 무엇이 '걔'야 했고, 또 '바로'라는 말은 무슨 의미로 발언되었단 말인가? 하여튼 두 사람의 상념이 그것이 어떤 미망(迷妄)에서 빚어진 것이었든, 어떤 예지(叡智)에서 온 것이었든, 이 순간 완전히 호흡을 같이했던 것만은 사실이었다. '데이몽이 깃드는 시간'이라고도 할까.

어린 영호는 언제나처럼 남저고리를 입고 아이 보는 계집아이 등에 매달려 있었다. 비탈이 되어 있는 넓은 길 가로수 밑에 서서 이쪽으로 등을 보이고 눈 아래 누운 시가에 눈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미처 알은 척을 할 사이도 없었을 뿐더러 누이가 애기를 본 일은 물론 없었고, 그의 모습에 대하여 들은 바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영호는 '바로' '걔'임에 틀림이 없었던 것이다.

하긴 영호의 출산에는 좀 상스럽지 못한 일이 있긴 있었다. 십 년 이상이나 단산 상태에 있었던 후라 염려하였던 골반의 골격 경화도

그리 심하지 않아, 영아는 노인의 애기답지 않게 자리에 떨어지자 이내 우렁차게 첫 울음을 울었고, 아들이 없던 집안인 만큼 온통 환희의 빛이 한꺼번에 집안에 퍼졌는데, 간호사의 손을 빌려서라기보다는 간호사가 주가 되어 제대(臍帶)를 결찰하려던 찰나였다. 후진통도 없이 갑자기 태반(胎盤)이 박리되어 나와 순식간에 애기는 쏟아져 흐르는 피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쓰고 말았던 것이다. 예기하지 못했던 일이라 싸움터에서 어지간히 피에는 익어 왔던 터이면서도 적지 않게 당황하여, 핏덩이로 돌변해서 킥킥거리는 영아를 저도 모르는 사이에 두 팔로 싸안았다.

모르는 것이 약이라고, 분만 후의 처치를 마치고 대문을 나서면서도 배웅하는 노인들의 갑자기 침통해진 것 같은 표정을, 그저 가운하며 바지 와이셔츠까지에도 피가 튄 것이 미안해서 그러려니 하고

"그러잖아두 빨게 되어 있었어요."

하며 어울리지 않게 너스레를 쳤던 것이다.

병원에 돌아가 보니 누이가 와 있었다. 작은집에 오는 것이 신기할 까닭도 없는데, 웬일이냐고 건네는 인사말 소리가 전에 없이 높았다. 흥분하고 있구나 하고 멋쩍은 웃음이 기어오르는 것을 누르고, 우선 피 묻은 옷부터 갈아입어야 되겠기에 앉지도 않고 세수터로 갔다. 한참 후 내실로 가 보니 간호사가 왕진 가방에 쑤셔 넣고 온 피 묻은 가운을 막 목욕간으로 가지고 가려는 중이었고, 얼굴빛이 질린 듯 이상한 표정을 한 누이가 성난 듯이 들어서는 사람을 쏘아보는 것이었다. 가운에 묻은 피가 끔찍스러웠으려니 짐작이 가서

"날 적부터 피의 세례야. 영웅이지."

하고 농을 하려니까

"닥치지 못해!"

무엇이 비위에 거슬렸는지 사뭇 노성이 되는 것이었다.

그것뿐이었던 것이다. 가운에 묻은 피의 연유를 말했던 것도 아니다. 입싼 간호사가 왕진 가방 속에서 가운을 꺼내며 가만히 있었을

리 없었고, 어렸을 땐 고춧가루만 묻어도 피가 났다고 잉——울었다는 누이니깐 가운에 묻은 피가 끔찍도 하였으리라 하고 지나쳤던 것인데, 거의 백일이 가까운 이날 와서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애기를 '바로 걔'라고 알아보고 또 그렇다고 대꾸가 나온 것이다. 지극히 자연스럽게——

애기는 계집애 등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 계집아이는 애기의 고개가 반쯤이나 젖혀져 있는 것도 모르고 무엇엔지 어지간히 정신이 팔려 있었다. 눈살이 찌푸려졌다. 이 폭양에 언제부터인지 이 어린아이에게 비상한 애착을 갖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애기 잘 봐 줘야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꾸짖는 말이 나오는데, 그제서야 알아본 계집아이는 핼끔 뒤를 돌아다보더니 언제나 같으면 호들갑을 떨 처지건만 눈을 커다랗게 뜨고 얼굴을 쏘아보면서 손가락으로 시가 쪽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불, 불이 났어요."

어디쯤 되는지 시가 한복판에서 불이 타고 있었다. 밤 같으면 온통 하늘 언저리까지 벌겋게 물이 들었으리라. 불꽃은 찬란한 햇볕에 빛을 잃은 채 검은 연기 속에서 마구 광란하고 있었다. 푸르스레한 연기가 악(惡)의 의식(意識)이나처럼 자꾸만 번져 가고 있었다. 대낮의 불이란 밤의 것보다 끔찍스럽지는 않아도 좀더 처절(凄絶)한 느낌을 준다는 생각이 드는데, 누이가 옆에서 넋을 잃은 소리로 입속에서 뇌었다.

"큰 불이로구나!"

큰 소리도 아니었는데 잠들었던 영호가 부시시 눈을 떴던 것이다. 애기는 낯선 부인이 자기 옆에 바짝 서 있는 것이 채 깨지 않은 눈에 이상하게 보였든지, 와아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퍽이나 순한 아인데 웬일인지 누이가 달랠수록 도리질을 하곤 울기만 하는 것이었다. 무서운 것을 본 어린 짐승이 울 듯, 공포가 서린 음성이라고 까닭도

없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집애 등에서 애기를 풀어 안았다.

불은 점점 화세를 더해 가고 있었다.

그런 일은 요즘 와서 곧잘 있었다. 처음 보는 광경, 처음 듣는 말이건만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라든가, 또는 전연 무자각 상태에서 알지 못했던 내용을 거의 정확하게 받아넘긴다든가, 자기 의사보다도 말이 앞서 나온다든가 하는 일이다. 어린 영호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문제는 누이가 말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치우(痴愚)가 아니고, 왜 거기에 거의 반사적으로 동조하게 되었나 하는 데 있는 것이다.

한참을 지난 후에야 누이한테서 영호가 '바로 개'라는 것을 알아차린 까닭을 들었는데, 기이하게도 처음 듣는 그런 말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같이만 여겨졌던 것이다. 그러면서 호된 분노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제대의 분리(分離)가 끝나기 전에 태반이 박리되는 경우는 그리 흔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태아의 분만이 끝나면 자궁에서부터 떨어져 나오게 마련인데, 시간이 좀 일렀다고 거기다가 흉칙한 의미를 붙인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 아니겠는가. 하여튼 어린 영호는 그들의 해석을 따르면 그런 것으로 하여 장차 살인을 범하게 되는 운명을 지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가는 그 운명을 피하기 위하여, 백날 동안을 그 깨끗하고 천진한 몸에 천형(天刑)의 수의(囚衣)인 일곱 벌의 남저고리를 입어야만 했다. 진실로 불행은 아가의 출생시 그런 상스럽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보다 징그러운 일곱 벌의 남저고리를 입힘으로써 하나의 미망(迷妄)의 세계를 빚어 내었다는 데 있는 것이다.

고리타분한 성격이라 격정하는 일이란 별로 없는 사람이, 남의 일에 흥분하여 마구 음성이 높아지는 것을 보자 누이는 말을 삼키고 이

쪽을 응시했다. 잔주름에 싸인 눈에 공포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그런 말을 들은 후부터 기다려지는 일이 하나 생겼다. 또 한 번 영호 같은 경우를 당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도 또 애기에게 남저고리를 입히려 들 것인가. 아니면 좀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정도로 흘려 버릴 것인가 궁금했다. 남저고리를 입히우고 있는 영호가 측은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다시 없었다. 백일이 지나자 애기에게서는 그 징그러운 남빛 저고리가 벗겨졌고 어느덧 모두 남저고리를 잊어버렸다. 이윽고 어느 날 골목에서 크림빛 스웨터를 입은 영호를 보았을 때, 그렇게 줄기차게 계속되던 여름이 끝나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그녀가 병원에 찾아온 것은 그 무렵이었다고 기억하나, 어쩌면 훨씬 오래 전 일일지도 모른다. 손질을 잘못한 파마 머리가 어색한 어리디 어린 소녀의 젖가슴만이 불쑥한 것이 잘못된 거나 같아, 어딘지 정시할 수 없는 애처로움을 가졌다. 안색이 무척 나빴다. 그러나 진찰을 받으러 온 것은 그녀가 아니고, 인조 포대기에 싸 안은 애기였다.

생후 3주일 될까말까, 영양 상태가 꽤 좋았다. 다만 눈을 뜨지 못한다는 것이다. 애기 아버지는 군인인데 전방에 있노라 하고 낯을 붉힌다.

애기는 병원을 잘못 찾아온 것이었다. 농루안(膿漏眼)이었던 것이다. 원장이 ××안과를 찾아가 보라고 일렀다. 열성이 보이지 않는 권고다. 그녀 앞에서 원장은 여느 때보다 더 커 보인다. 기름진 손가락이 책상 위를 더듬어 아무렇게나 걸리는 대로 신문을 들어올렸다. 가라는 태도다.

여인은 나쁜 짓이나 한 것처럼 송구해 하며 애기를 다시 포대기에 싸 안는다. 힘없이 일어섰다. 선 채로 어리둥절하고 있다. 찌든 고무신에서 버선을 신지 않은 발을 한쪽 빼어 한쪽 발 위로 포갠다. 엄지로 발등을 문지른다. 빈대에 물렸는지 벼룩에 뜯겼는지 발등뿐이 아

니다. 애기 얼굴은 말할 것도 없고, 엄마 목덜미하며 말이 아니다. 발을 도로 고무신에 꿰곤 원장 쪽으로 한 번 눈을 보낸 후, 무슨 도움이나 바라듯 간호사를 쳐다본다. 요금을 내고 가고 싶은 표정이다. 목불인견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가 싶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가시죠."

해 버리고는 이어

"참 대학 병원 안과에 친구가 있습니다. 소개장 하나 써 드리죠."

어린 어머니는 고맙다는 말도 할 줄 몰랐다. 무슨 귀한 것이나처럼 애기를 안은 손 끝에 소개장을 받쳐 들고 나가는데, 아랫자락이 윗자락보다 축 늘어진 엷은 여름 치마가 몹시나 쓸쓸했다. 가을이 왔다고 느꼈다.

여인은 다시는 병원을 찾지 않았다. 아이의 증세로 미루어 엄마도 치료를 요한 것만은 의심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그런대로 잊고 말았고, 일신상의 일이 분주해 옴에 따라 병원에는 어쩌다 들렀기 때문에 훗일은 알 길이 없었다.

누이라고는 하나 엄니가 열여덟에 난 맏이와 마흔다섯에 난 막내 아들이고 보니, 27년이나 차가 있는 데다가, 노산으로 유도가 부족한 어머니를 대신해서 자기 딸을 젖혀 놓고 젖을 먹여 기른 사람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당시 육십이 가까웠다. 늦게나마 아주 단절되는 줄 알았던 가문을 이을 자식이 생겼다고, 남들이 다 낳는 아들을 가지고 봉의 알이나 얻은 것마냥 법석들이었다 한다.

아버지를 여읜 것은 돌 전이어서 기억에 있을 리 없으나, 한시도 아들에게서 눈을 떼어 본 일이 없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은 국민학교 입학하던 해이고, 이후 누이는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물려받아, 나이로 보나 마음 쓰는 것으로 보나 누이라기보다 차라리 어머니라는 편이 나았다. 아버지의 완고 때문에 초등 교육도 받지 못한 그녀는 철저한 불교 신도이다. 배우지는 못했으나 솜씨 있고 상냥하고

부지런하고 철저하게 무식한 데다가, 선불리 재산깨나 지니는 처지라 편견이 심하다. 무엇 그리 '알량'한 집안이라고 자나깨나 가문 타령만 하는 것이다. 친정만 바친다면 그도 할 수 있는 말이나, 누이로선 조실 부모한 단 하나밖에 없는 아우를 어떻게 해서든지 훌륭하게 성장시켜 가문을 잇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이 깊은 사명감같이 골수에 배인 모양이었다. 일찍부터 마치 데릴사위나처럼 처가 일을 돌보고 온 매부란 사람도 용하디 용한 위인이기는 했지만, 그런대로 수단도 있는 모양으로 이조 때부터 내려오는 큰 물주집이라고는 하나, 어색하기 짝이 없는 골기와집 2층에 난간 친 고옥을 제법 웅장한 5층으로 갈아 지은 것도 이 사람이었다.

미국 유학 건만 하더라도 누이가 서둘기 시작한 일이다. 그러고 보니 그저 골고루 좋은 성적에 이렇다 할 특기가 없었던 까닭도 있긴 하지만, 의과에 들어가게 한 것도 누이의 주장이 컸기 때문이었다. 말썽 없고 온순하고 공부는 일등만 하고——이것은 누이의 입버릇이 된 자랑이지만 따져보면 얼간이라 할 수밖에 없다. 사실 너무 황송한 불만일지 모르나 일요일 오전 같은 때 아침 식사를 마치고 2층 방으로 올라가서, 어느새 자리가 걷어져 있고 말쑥하게 소제가 끝나 있는 것을 보면, 확연치는 않으나마 아무도 뒤를 거두어 주는 이가 없는 처지보다 오히려 부자유하다는 느낌이 들곤 하였다. 누이로선 식사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치워 놓는 것이겠지만, 이럴 때마다 자신이 거미줄 같은 데 얽히기나 한 것 같은, 또 그것을 털어 버리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 엉켜드는 것 같은 부자유를 느끼는 것이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윤택한 환경 속에서 지내 왔건만, 여지껏의 내적 경험의 총화(總和)는 결국 이러한 부자유였고, 표면상의 침착 온건——이런 태도는 그것을 호도하려는 비열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부자유한 느낌은 그즈음 부쩍 심해져 있었다. 무언지 몰라도 분주했다. 만날 사람이 많았고 준비할 일이 꼬리를 물었다. 떠나기 전에 약혼을 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누이와 그녀의 동서되는 원

장 부인이 서둘러 그녀들의 계 친구인 어느 토건업자 부인의 딸하고 소위 맞선을 보아야 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여지껏 동정인 것이다. 딴은 부끄럽다고 생각한 것은 현재의 감정이지 앞서까지는 가소롭게도 그것이 자랑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어쨌든 좋은 신랑감이라는 것이다.

규수는 내년 봄에 대학을 나오게 될 스물두 살 난 처녀로 웃으면 덧니가 애교 있는 앳된 얼굴이었다. 이내 미국으로 가게 하고 저쪽에서 결혼해도 좋고 돌아와서 해도 좋고——이것이 모두의 의견이었다. 어떻게 오해를 했는지 장모감이나 색시는 무척 흡족해 했고, 이쪽에서도 청순한 소녀의 모습에 이끌리기도 하여, 우선 걸맞은 신랑 신부란 말을 들으며 깜짝 놀랄 만큼 가늘고 녹신녹신한 손가락에 약혼 반지를 끼워 주었던 것이다.

하루는 그녀와 덕수궁을 거닌 일이 있었다. 때를 넘긴 국화가 그래도 더러 남아 있었다. 다리를 뻗고 앉은 시든 잔디밭에 초겨울 햇살이 엷은 대로 다사로웠다. 귀여운 말들이 귀여운 웃음을 섞어 속삭거려졌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그녀의 손이 이쪽 어깨에 와닿았다. 어디가 예쁘다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으나 귀여운 소녀——마치 꽃 형태는 묘연하면서 포근한 정감을 담은 봄의 들꽃 같은 소녀였다. 어깨에 사뿐히 얹힌 손에 눈이 갔다. 연지색 가죽 장갑에 꼭 싸인 손의 질감(質感)이 겹쳐 입은 옷을 통하여 직접 살에 느껴졌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쪽 손이 움직여지며 그것을 잡으려 할 때였다. 마치 어깨 위에 앉았던 연지색 작은 새가 무엇에 놀라 파르르 날아가 버리기나 한 것처럼 그 손은 잽싸게 떨어지더니

"아이 으스스해. 나가 보실까요?"

하는 고운 음성과 함께 옷에 붙은 마른 풀잎들을 팔딱팔딱 터는 것이었다.

너무나 창졸간의 일이라 당황하여 따라 일어서며, 순간 연지색 그 고운 손이 새처럼 날아가 버리지 않고 그대로 그녀의 팔에 달려 있는

것이 기이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소녀는 아무것도 깨닫지 않았던 양 여전히 쾌활했다. 그러나 쑥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었고 마음이 자꾸만 안으로 기어들어갔다. 동정이 아니었다면 그런 꼴 사나운 짓은 안 했으련만——일찍이 생각도 못 미쳐 본 이런 상념이 치솟는 것이었다.

그런 일은 그 후 가끔 있었다. 어느 날 밤 색시 집으로부터 저녁 초대를 받았었을 때다. 장인 되는 사람이 농담을 좋아하여 식사는 끊일 새 없는 웃음으로 진행되어 마음들이 모두 너그럽게 풀려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색시 방으로 들어가자 둘은 공연히 얼굴을 마주보고 깔깔 웃었다. 그 여세로 이쪽 팔이 벌려지며 가냘픈 허리를 껴안으려는 순간이었다. 탁상의 전화가 큰 일이나 난 것처럼 따르르르…… 울렸던 것이다.

그것으로 그만이었다. 물론 신경을 쓸 아무런 근거는 없다. 그러나 설사 우연에서 혹은 외부에서 오는 장해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지라도 신경에 닿는 것이 있었다. 지극히 평범한 행위, 남에게는 일상(日常)이 되는 행위가 이처럼 어려운 것인가. 마치 서투른 배우가 뜻하지 않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수습을 못 하여 무대를 망쳐 버리듯 변에 응하는 주변이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약혼녀의 손 한 번 잡으려 하지 않는 시속 청년으로는 희유한 점잖은 약혼자가 되어 버렸고, 그 이름 아래 발버둥치는 초조가 있었다.

소춘(小春)의 어느 날 색시의 친구가 개인전을 열고 있다 하여, 그것을 둘이서 보러 가기로 한 일이 있었다. 그날은 모처럼 병원에도 들러 볼 생각이어서 올라갈 마음은 없었지만, 차라도 한 잔 들고 가라는 바람에 마지못해 신발을 벗었었는데, 나오며 구두에 발을 꿰려고 보니 구두가 말쑥하게 닦여져 있는 것이었다. 살뜰하게 뒤를 거둬 주는 누이가 구둔들 소홀히 할 리 없어, 사실 다시 닦을 필요가 있었을 리 없긴 하나 더럽지 않은 구두를 거듭 닦아 주는 것도 정성의 하나라도 보면 그도 고마운 일이었다. 그러나 좀 어려운 일이 생겨 있

었다. 실은 새 구두라 아직 발에 익지 않아 새끼발가락이 쓸려 발 끝에다가 솜을 막고 왔었던 것인데, 구두를 닦으며 그것을 북더기로 알았던지 빼어 버려 한 걸음마다 아픔을 참아야만 했던 것이다.

무엇이 우스운지 재재거리는 색시 친구들에 싸여 너무나 나무랄 데 없이 뒤를 거두어 주는 누이에게 느끼는 막연한 부자유감——그것이 자꾸만 상기되어 우스웠다.

색시는 다른 친구들도 모였기에 같이 어울리게 하고 헤어져서 병원에를 들렀다.

군에서 나온 후 잠시나마 일을 도왔던 유명한 산부인과는 누이의 시동생 집이었다. 웬 바람이 불었느냐고 어린 딸아이가 특히 반기는 것을 떼치고 나와 차를 잡으려는데, 무슨 까닭인지 이날따라 지나는 차가 없다. 한참 만에야 무슨 행진이 있어 교통이 두절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발이 아파 그렇지 차 탈 필요도 없는 거리다. 다만 큰길이 막혀 있어 여느 때 같으면 지나기를 꺼리는 골목길을 잡아야 했다. 거기에는 사창굴 중에서도 제일 끔찍한 양동 천막촌이 있었던 것이다.

어두운 골목에 들어서자 악 하고 소리를 칠 뻔했다. 한동안 보지 못한 영호가 여전히 계집아이에게 업혀 거기 있었던 것이다. 초겨울이라고는 하지만 봄처럼 다사한 날씨다. 나와 노는 것이 변될 것 없지만 장소가 장소이다. 그러나 놀란 것은 그 때문이 아니다. 밝은 곳에서 갑자기 어두운 데 들어서서 눈이 익지 않았던 까닭으로 그랬던지, 그 순간 귀여운 영호가 다시 그 징그러운 남저고리를 입고 있는 것같이 보였던 것이다. 흔히 있는 시각 현상이지만 꺼림칙한 일이었다.

눈이 익어 오자 영호는 포근한 초록색 새 스웨터를 입고 있는 것을 알았다. 한동안 보지 못했건만 무척 반가워한다. 자꾸만 손을 뻗기에 포대기를 풀어 안아 주며 계집아이를 나무랐다.

"너 이런 데 애기 업구 오면 안 돼."

계집아이 눈이 똥그래지며

"선상님, 우리 집 할머니한테 일러바치지 않으시죠? 네, 우리 집 할머니 아시면 막 야단하세요."

하고 올려다본다. 표정을 읽어 내고야 안심하였는지 언제나처럼 호들갑스럽게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선상님 저기 저 아이 말예요. 눈이 날 적부터 멀었대요. 근데요오, 저어기 군밤 장사 할아버지가요오, 가차이 가믄 옮는대요."

가리키는 쪽을 보니 아이를 업은 여인이 이쪽으로 등을 보이며 쪼그려 앉아 길가에서 무엇인가를 빨고 있는 모양이었다. 어린것은 등에서 고개가 발딱 젖혀진 채 눈을 감고 있다. 손질을 하지 않은 퍼머머리 뒤꼭지가 어수선했다. 깡통을 이어 붙여 만든 대야에 넝마 같은 빨랫거리가 꽤 담겨져 있고, 빨래를 이길 때마다 등에 업힌 아이의 고개가 흐느적거린다. 눈은 감고 있었으나 아이는 자고 있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어머니가 방망이질을 시작하였을 때 드디어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어머니는 몸을 흔들어 두어 번 얼러 보다 아이를 업은 채 앞으로 돌려 젖꼭지를 물렸다. 아이는 더욱 보채는 모양이었다. 여인은 하는 수 없다는 듯이 젖꼭지를 물린 채 일어섰다. 이윽고 그녀의 얼굴이 이쪽을 향했을 때, 언젠가 아이 병을 보아 달라고 산부인과 병원을 찾아왔던 그 어린 어머니를 보았던 것이다.

집안이 어수선했다. 묵어 내려온 상가(商家)에서 자랐건만 장사일은 잘 모른다. 그저 들썩들썩하면 오히려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고 왔다. 그러나 그런 활기와는 좀 분위기가 다르다. 간밤의 꿈자리마냥 뒤숭숭만 하는 것이다. 나쁜 술에 취한 끝에 든 잠이라 숱한 꿈을 꾸곤 모조리 잊어버린 뒤에 오는 두통과 허전감만이 남아서 그런가.

전방에서는 대 소제날로 정해져 있었든지 총동원으로 상품 정리에

법석들을 하고 있었다. 전방에는 잘 나가지 않는 누이부터가 수건 쓰고 중동매 매고 오동통한 팔을 팔꿈치까지 드러냈다.

지껄지껄 와글와글 시끄럽다. 가쁜 숨결들——그러면서 어떤 이완(弛緩)이 보인다. 안전한 위치에서 끔찍한 것을 즐기는 흥분. 음성들이 높았다.

"싸아악 쓸었단 말이야. 싸아악."

늘 심부름만 다니느라고 상점에는 붙어 있는 일이 드문 복행이가 상품을 한아름 안은 채 노랫조다.

"경칠 놈 같으니, 이 추위에 털려 나온 사람들 생각두 해 줘야지."

손님 접대가 능란하다는 순성이는 나무라는 어조다.

"형씨 아쉬워하는구려?"

한쪽 눈이 거짓말같이 잽싸게 감겨졌다. 미끈한 순성이 얼굴에는 표정이 없다. 여자처럼 고운 손끝이 날쌔게 움직일 뿐이다. 무엇이 화제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어리둥절하고 있는 앞을, 바쁜 손놀림 발놀림들이 어지러웠다.

"사람두 죽었대요."

"그런 큰 불이었으니깐!"

당연하다는 대답은 누이의 음성이었다.

"몹쓸 에미년 같으니. 아무리 더러운 똥갈보년이기로서니, 그래 새끼를 버리구 제 년만 살겠다구 뛰쳐나간담? 하늘이 그냥 둘 줄 알었나?"

분개를 털기나 하는 것처럼 총채 끝을 잽싸게 놀린다. 무엇을 분개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대로 우선 큰 불이 난 것, 사람까지 죽은 것, 그런 것들에 짐작이 갔다. 그러자 코끝이 아릿하게 매워 왔다. 좀 전부터 욱신거리던 골이 맵싸해지며 뇌수의 주름 틈으로 감겨드는 연기(煙氣)를 느꼈다. 현기가 나며 헛기침이 터졌다. 그 바람에 누이의 얼굴이 이켠으로 돌려지며

"아니, 그 소동에 무슨 잠이니 그래."

하고 혀가 차여졌다.

간밤에 큰 시장 건너 양동 사창굴에 큰 불이 나서 누더기 같은 천막집들을 거의 쓸다시피 했다는 것이다. 화세가 하도 심하여 연소가 염려되므로 상품들을 일단 피접시켰기 때문에 다행히 연소는 면하였다 하여도, 불난 뒤 못지않게 뒷정리에 이 소동이라고, 송구한 말 내용보다는 오히려 재미라도 보고 있는 태도였다.

엄청난 수의 이재민에 비하여 거짓말처럼 적은 손해액, 당국이 철거에 골머리를 앓던 누더기가 제바람에 뜯겨진 것이다. 누이로선 말만 들어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악의 소굴이고 보니, 돈독한 불교도인 그녀의 두터운 자비심도 이런 곳에서는 천수 부동명왕(千手不動明王)의 손아귀에 쥐어진 시퍼런 주악(誅惡)의 칼끝이 되는 모양이었다. 흥분하고 있기도 하였지만 누이의 지병(持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편견이 이날따라 심한 것은, 사창굴이란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거름통이라 애초 침부터 먼저 뱉고 시작한 수작인 까닭이라고 보였다. 묻지 않는 말이 악의를 품고 검은 연기처럼 자꾸만 쏟아져 나왔던 것이다.

불탄 뒤를 정리해 본즉 갓난애 것으로 짐작되는 백골 하나와 반쯤 탄 여인의 소사체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동리 전체가 판자벽에 레이션 상자 지붕이 아니면 제대로 쳐지지도 못한 천막——말하자면 북더기 불쏘시개에 불이 당겨진 격이다. 불은 삽시에 퍼졌다는 것이다. 길이라곤 꼬부랑꼬부랑 움막 틈으로 누벼 이어진 틈새라고 불러야 옳을 골목이다. 죽음이 둘 밖에 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기적이라 하겠다. 또 그런 곳에서 죽음이 났기로니 누이처럼 도도하고 정숙한 부인으로선 구더기가 터진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법도 한데, 이날따라 어디가 잘못되었던지 그 추잡한 구더기를 발꿈치로 짓이겨 터뜨리고 싶은 잔인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화세와 연기에 막혀 소사하는 경우 희생자가 하나 아닌 때는 거의 모두가 한자리에 엉켜서 발견되는 것이 보통인데, 반나마 타다 만 만큼 더욱 끔찍스러운 여인의 시체는 새다리보다도 가냘픈 어린 해골

이 팽개쳐 있는 곳에서 얼마쯤 떨어진 곳에 엎드려져 있었다 한다. 그 위치와 자세가 누이의 분개와 멸시와 혐오를 자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어린 해골은 마땅히 어미 품에 있어야 했고, 어미의 자세는 끝까지 불길로부터 아이를 가리듯 아이 위에 꾸부정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무도한 어미는 천막에 불이 붙은 후에야 잠이 깨었고, 일이 급한 것을 알자 아이는 버려둔 채 혼자만 뛰어나가려다가 무엇에 걸려 쓰러진 것임에 틀림이 없었다. 더구나 알고 보니 아이는 날 적부터 소경이라지 않는가——신이 오른 듯이 떠들던 누이가 갑자기 말을 끊고

"왜, 어디가 어떠냐?"

하며 미간을 접었다. 안색이 변해 있었던 모양이다.

아이를 옆에 뉘어 놓은 채 몸을 판 더러운 어미, 금수에게도 모성애는 있는 것인데——그런 말들이 텅 빈 머리속에 우글거렸다. 모성애——처음 그 산부인과 병원에 눈먼 아이를 안고 온 그녀가 그토록 애처롭게 보인 것은, 또 그 굴속 같은 움막에서 오히려 경건(敬虔)이랄까, 무언지 삼가는 마음을 갖게끔 한 것은 무엇이었던가. 그렇다! 확실히 그것은 존재(存在)의 영점(零點)에 서서, 그래도 끓고 있는 강한 모성애였던 것이다.

말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도 속이는 것이 된다지만, 하여튼 누이 모르게 지난 20여 일 동안을 그 움막에 드나들었다. 처음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은 언젠가 그녀가 골목에서 아이를 업고 빨래를 하던 날 저녁 때였다. 나쁜 짓을 하다 들킨 아이처럼 얼굴을 붉히며 당황해 하는 그녀에게 알은 체를 하며 다가섰을 때, 우선 놀란 것은 아이가 먼저 보았을 때보다 무척 파리해진 점이었다. 젖을 제대로 못 빤다는 것이다. 아구창(鵝口瘡)이었다.

초산은(硝酸銀)을 가지고 다시 찾아갔었을 때의 그녀의 모습은 그야말로 붓으로 그려 낼 도리가 없는 것이었다. 어리디 어린 얼굴에

먼지같이 뒤집어쓴 어색한 화장, 눈썹이 짝짝이로 그려진 것은 솜씨가 서툴러서가 아니고, 움 속이 너무 어두웠던 까닭이라고, 이것은 나중에야 짐작이 갔다. 그렇게 해야만 곱게 보인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으나 원형으로 칠해진 볼연지, 짙은 입술하며 서커스 걸 같은 희극적인 차림은 우습다기보다 왈칵 슬픔 같은 것을 솟게 하였다. 다시 찾아간 것이 그녀에게는 청천의 벽력이나처럼 여겨졌던 모양으로, 거의 질린 표정을 보자 무척 해로운 일을 하러 간 것 같은 송구함을 느꼈다.

천막 속은 두어 평 가량이나 될까, 한켠으로 놓여진 나지막한 마루 같은 것에 암페라를 깔아 거기가 방으로 쓰여지는 모양으로, 납작한 이불 때기가 구석에 개켜져 있었다. 종이로 바른 사과 궤짝 위에, 앞에 켜져 있는 등잔불이 어린 손거울이 있었고, 그 앞에 난한 포장의 화장품병들이 둘레와 어울리지 않게 놓여져 있어 그녀의 생활을 말해 주고 있었다.

양동은 사창굴 속에서도 가장 끔찍한 곳이라고 들어 왔다. 일선에서 돌아온 가난하고 굶주린 졸병들, 꿀꿀이죽으로 끼니를 잇다시피 하는 노동자들, 간혹 돈 없는 학생들, 그런 사람들이 급한 일이라도 보러 가는 것처럼 간다는 것이다. 낭설인지 진담인지는 모른다. 다른 여자들은 어쩌고들 있는지는 더욱 모른다. 그러나 그녀의 천막 속을 보고 있노라니 인간의 본능이란 약점에 까닭 없는 긍련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토록 그 곳에선 음탕이라든가 분홍색 흥분 같은 것을 느낄 수는 없었다. 인간이 지니는 어쩔 수 없는 끈적끈적한 비린내, 그런 것이 배어 있는 것 같아 오히려 처절하였다.

암페라를 깔지 않은 쪽 맨땅에 연탄 화로가 하나, 이것은 아이를 얼리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어머니의 정성을 말해 주는 듯, 이런 곳에서는 끔찍한 사치라고 할 수 있는 연통을 껴서 참다랗게 놓여 있었다.

아이의 용태는 생각한 것보다도 말이 아니었다. 병원에서 보았을

때는 꽤 좋은 영양 상태였었는데, 거미처럼 파리했다. 그 거미처럼 파리한 팔다리에 손거울 앞에서 가물거리고 있는 등잔불마냥 가냘픈 목숨이 붙어 가물거리고 있었다. 사실 아이는 죽음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과 싸우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무엇보다도 가슴을 친 것은 아이 옆에 놓여 있는 젖그릇이었다. 유량이 유달리 많다 한다. 아구창을 앓는 아이는 그 풍족한 젖을 빨 수가 없어 어머니는 그렇게 일삼아 젖을 짜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침침한 등잔불을 받아 노리께하게 윤이 흐르는 기름 엉킨 젖그릇——이 언어를 절한 가난 속에서 단 하나의 호사스러운 낭비는 그런 이유로 있었던 것이다.

천막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바라본 서쪽 하늘이 잊혀지지 않는다. 장미빛으로 고요한 하늘이었다. 정(靜)의 빛이라고 느꼈다. 무릇 인간의 삶에 철저하게 무관심한 고요였다. 먼 언덕 위에 서 있는 교회의 첨탑이 실루엣으로 보였다. 참으로 대지는 위대한 기적(奇蹟), 억만 가지의 삶을 싣고 덤덤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 두려움 같은 것이 솟는 것이었다.

다음날은 눈도 보아 줄 마음으로 붕산과 페니실린까지 가지고 천막집을 찾아갔다.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그것은 동정이라기보다 인간의 괴로움에의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옳았다. 사실 괴로움을 본다는 것은 사람을 가까이하는 것이다. 더구나 당하는 본인이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 알 수 없는 애착까지 생기는 것인지도 모른다.

있는 대로의 시대(時代)의 슬픔과 괴로움이 덮쳐 있는 그녀는 그런 대로 무척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명랑성에는 처음 적이 놀랐다. 그야말로 다 죽어 가는 중환자가 일어서서 비틀거리지 않고 걸어 나가는 것을 본 것 같은 놀라움, 그것이었다. 그것은 삶을 '참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 '살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삶, 그릇된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런대로 피가 엉킨 삶을

볼 때 돌이켜지는 것이 있었다. 여지껏 살아온 것이 아니고 끌려 왔다는 느낌이었다. 너무나 안이하고 평탄한 삶, 스스로 책임져 행동한 일이 없었다. 그러므로 어떤 행동이고 이 여인의 그것처럼 숙명이 되는 일은 없었고, 그저 간단히 기입된 경력(經歷)의 책장이 수월하게 넘겨졌을 따름이었던 것이다.

천막촌에 드나들면서부터 또 하나 얻은 것이 있었다. 즉 사람은 어떻게서라도 살 수 있다는 확인이었다. 그녀만 하더라도 아이를 옆에 뉘어 놓은 채 손님을 맞는 모양이었으나, 그것을 추악하다든가 용인할 수 없다든가 하는 노여움은 가져지지가 않았다. 실로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윤리에 선행(先行)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눈은 몰라도 아이의 아구창은 확실히 조금씩 나아 갔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여 눈먼 이 아이에게는 영호에게 쏠리는 그런 애정이 가져지지 않았다. 회복함에 따라 차차 살이 붙어 오는 것을 보면서, 아무래도 자기가 해로운 짓을 한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마치 장질부사를 앓고 난 환자가 쇠고기 먹고 싶어하는 것을 보고 사다 먹인 것 같은 후회가 간혹 스쳤다. 사실 눈먼 이 아이는 어쩌면 병들고 가난한 어린 어머니에게 있어 장질부사 같은 존재일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녀의 경우 그 장질부사는 죽어야만 완치될 수 있는 질병이었다. 그토록 아이에 대한 그의 정성은 극진한 것이었던 것이다.

"몹시 안색이 나쁘구나. 감기라두 든 것 아냐? 떠날 날이 가까운데……."

누이는 계속해서 안색을 살피고 있었던 모양이다. 거듭 걱정스러운 듯이 말을 건넨다.

정신을 돌려 보니 어느덧 끝까지 탄 담배가 손끝을 그을리고 있었다. 그것을 발 밑에 던지며 일어서는데, 진열장 앞으로 가려던 점원 하나가 두 팔에 잔뜩 안고 있던 상품으로 등을 밀었다. 비실거려지는 것을 걸음으로서 옮기며

"잠이 좀 부족한 모양이에요. 한잠 자구 나면 낫겠죠."

하니깐 누이의 눈이 치떠지며 이마의 흉한 주름이 누벼졌다.

"아아니 잠이 부족허다구? 얘애두! 불이 그만했으니 다행이지 여기까지 건너 퍼졌다면 타 죽을 뻔했다. 얘. 그 소동에 깨지 않았던 건 너뿐이야."

이 말은 왠지 뒤통수를 때렸다.

방으로 돌아가 보니 자리가 그대로 있다. 일찍이 없던 일이다. 그러나 다시 누울 마음은 없었다. 들어간 걸음으로 창 옆에 가 섰다. 입 속이 가득했다. 혓바닥이 까실까실 강판 같다.

창 밖엔 눈이라도 올 듯한 무거운 잿빛 하늘 아래 음산한 지붕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군데군데 이은 곳이 있는 양철 지붕, 더러 깨어진 곳이 있는 기와 지붕, 빛이 아주 바래 버린 붉은 슬레이트 지붕, 묵은 상가(商街)라 그런지 낡고 지저분한 지붕들이었다. 내려다보고 있노라니 문득 그 지저분한 무수한 지붕들이 마치 헌데 딱지같이 보여 와서 견딜 수가 없어졌다. 벗겨 젖혀 보면 피고름이 줄줄 흐르는 헌 자리가 나올 것 같은 환각이 자꾸만 앞에 와 섰다.

이마를 짚어 보았다. 싸늘했다. 두통이 심했다. 개키지 않고 있는 자리에 가서 아무렇게나 쓰러졌다. 누우니깐 더욱 까부라지는 것같이 피로가 왔다. 그러면서도 잠이 올 것 같지는 않았다.

방으로 올라오면서 들은 누이의 말이 되살아 왔다. 그대로 두었더라면 타 죽을 뻔했다——번개 같은 것이 홱 지나간 느낌——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부릅뜨고 반신을 일으켰다.

불이 난 것은 몇 시경이었던지. 그 골목에 들어섰을 때도 초저녁은 아니었다. 일찍 떴던 달이 넘어간 후의 캄캄한 골목 어구에 군밤 장수 노인이 아직 종이로 가린 호롱불 아래 웅숭그리고 앉아 졸고 있었다. 내뿜는 숨이 하얗게 얼었다. 그러나 몸이 확확 달고 있었다. 친구들이 열어 준 송별회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몹시나 외로웠다. 마신 술이 과했던 탓만은 아니었다. 군복을 입

고부터 배운 술이지만, 두주를 사양치 않는 주량이다. 주사를 부려 본 일도 없다. 이때따라 기분이 거칠어 있었던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뜻밖에 쓸쓸한 송별회였다. 어쩌면 결혼식도 못 볼지 모른다고 약혼자까지 청해다 놓은 자리에 온다던 친구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기다리다 지쳐, 늦게서야 김이 나간 음식들을 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애초부터 사람 수를 줄잡았던들 그처럼 어색하지는 않았으련만 섣불리 바랐던 것이 나빴다. 십조 방을 두 개, 사이 장지를 떼어 통하게 해 놓았던 것이다. 합계 일곱 명으로는 방 하나만이라도 오히려 넓었다. 술을 못 하는 소녀는 외투를 입고서도 입술이 새파래서 달달 떨고 있었다. 밤이 이슥해 오며 엉성하게 지은 요릿집 방에는 냉기가 돌기 시작하여, 떼었던 장지를 도로 들여야 했다. 보이들이 한참 서두는 틈을 타서 변소에 갔었을 때였다.

입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주방으로 통하는 콘크리트 복도를 막 돌아 나오는데 동창인 K와 R의 말다툼 같은 소리가 들렸다. K가 짜증이 섞인 음성으로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미리 예약을 해 놓았느냐고 책하고 있었다. R은 설마하니 이럴 줄은 몰랐다고 난처해하는 모양이다.

"글쎄, 나두 나오구 싶어 나온 줄 알아. 자식 술을 들이부어두 쌍판 하나 달라지지 않구. 기름 조개 겉은 수재(秀才) 낯짝 갈겨 주구 싶은 걸 참구 있는 거야."

요릿집 측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둘이 다 잔뜩 불쾌한 눈치다. 술이 한꺼번에 깨는 것 같았다.

방으로 돌아가자 막 술을 퍼마셨다. R의 말대로 조금도 얼굴에 오르지 않았다——나를 수재(秀才)라는 이름 속에 가두어 버리려는구나——노여움이 왔다. 지나간 일이 조명탄이나 던져진 것처럼 망각의 어둠 속에서 떠올라 왔다.

언제나 반장을 맡아야 했다. 국민 학교 시절부터 줄곧 으레 반장이

라는 굴레가 씌워졌었다. 한참 장난도 하고 싶은 나이에, 반장인 까닭에 의젓하게 일처리를 해야만 했다. 그래서 친구들은 자기들 편에 넣어 주려 들지 않았다. 그러면서 단체적으로 잘못이 있을 때면 그들을 대신하여 반장이 질책을 받아야만 했다. 반장이 그런 짓을——이런 말 때문에 어렸을 때의 즐거움을 모조리 빼앗겼다. 도대체 누가, 또 무슨 까닭으로, 원치도 않은 반장을 만들었단 말이냐,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술자리에 살기가 돌았다. 아무도 떠들지 않았다.

겁을 잔뜩 먹은 눈을 한 약혼녀를 집까지 바래다 준 후도 그대로 집으로 돌아갈 마음은 없었다. 울상을 하며

"그렇게 약주 많이 잡숫는 줄 몰랐어요."

하던 그녀의 말이 신경에 걸렸다. 왜 수재면 술도 못 마신대——친구끼리 술을 먹은 후면 곧잘 어울려 간다는 곳, 그런 곳에 오늘 저녁에도 친구들은 기분 나빴던 술을 마신 뒷가심으로 갔는지 모른다. 그리고 보니 품행 방정이란 그런 축에 낄 수조차 없는 돌림쟁이의 대명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천막촌에는 그런 목적으로 간 것은 아니다. 걷다 보니 골목 앞에 와 있었던 것이다. 문득 요 며칠 분주한 대로 가보지 못했던 그녀의 생각이 났다. 그래서 골목길에 들어섰던 것이다.

그런 시간에 그 곳에 간 것은 처음이었다. 밤이 늦어 그런지 골목 광경이 들은 바와는 좀 달랐다. 그저 완연히 허세라고 짐작이 가는 주정꾼이 두서넛 떠들며 앞에 가고 있었고, 얼굴을 푹 숙인 연령 불명의 사나이가 하나 옆을 스쳐 가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그녀는 혼자 자지 않고 있었다. 늦었대야 통행 시간에는 아직 짬이 있었다. 그런 사회는 어떻게 짜여 있는지 들은 말밖에 없으나 기다리고 앉아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찾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았을 때 그녀는 못 볼 사람이나 본 것처럼 자지러져 놀랐다. 등잔불이 아니고 촛불이 켜져 있었다.

심지가 찍찍거리며 불꽃이 흔들려 그녀의 경악에 찬 짙은 화장을 한 얼굴에 어룽어룽 얼룩 같은 그늘을 짓는다. 뒷벽에 도깨비같이 큰 헐은 머리 그림자가, 그림자 임자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데도 흔들흔들 흔들리는 것은 겨울 밤바람이 천막 벽에 마구 거세게 부딪치는 까닭이리라.

그녀 쪽에서는 불빛을 역광(逆光)으로 받은 이쪽 얼굴이 어떻게 보였었는지 모른다. 그 추위에 땀이 나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얼마쯤 둘은 그렇게 말없이 마주보고 서 있었다.

이윽고 먼저 그 자세를 흩은 것은 이편이었고, 먼저 입을 연 것은 저편이었다. 움직인 것은 뜻이 있어서가 아니었으나 그녀는 그것을 다르게 보았던 모양이다.

"선상님, 못쓰십니다. 댁에 가셔서 주무시레요."

고향이 어딘지 그녀의 말투는 억양이 귀설었다. 그것이 이밤따라 심했다. 순간 왠지는 몰라도 그 말투에 '창녀'를 느꼈다.

욕정과는 동떨어진 횡포한 충동이 등을 움켜잡았다. 이윽고 숨막히는 긴장이 왔다. 겁을 먹고 뒷걸음을 치는 그녀를 암페라가 깔린 데까지 몰고 갔을 때, 그녀는 잽싸게 출입구 쪽으로 몸을 피하려 했다. 알 수 없는 격노가 솟아 한걸음으로 뒤를 쫓았다.

"왜 못써, 왜 못써?"

씨근거리며 나오는 말이 자기 음성 같지 않았다.

"선상님 같은 분이, 선상님 같은 분이……."

창녀는 여전히 저항하며 할딱거렸다.

——선상님 같은 분……? 너는 또 어떤 영어(囹圄) 속에 나를 가두려는 것이냐? 사나이이면 또 기백 환 돈이면 병신이라도 너를 가질 수 있다고 들었다. '같은 분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모르나, 이 말은 그 찰나 인생에의 참가(參加)를 거부하는 말로 들렸다.

걷잡을 수 없는 격노가 터졌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런 순간이리

라. 이때 그녀는 흥분에 겨운 눈에 한낱 가난하고 무력한 창녀로 보이지는 않았다. 이윽고 얼마 후에야 어린 창녀를 난타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맞으면서도 소리 하나 지르지 않고 깎아 세운 돌사람같이 마구 떨어지는 주먹이 멎을 때까지 그러고 서 있었던 모양이다. 자기로 돌아가며 망연(茫然)해지는 눈 아래서 그녀는 토막같이 아무렇게나 쓰러져 갔다.

그대로 뛰어나온 것은 자기에 대한 구역질 같은 혐오에서였다. 골목을 빠져 나올 무렵해서 통금 사이렌이 길게 울었다.

——깨지 않고 그대로 두었더면 타 죽었을 거야——누이의 말이 또 되들려 온다. 뒤이어 또렷이 떠오르는 광경——저기 저만치 문 앞에 실신해 쓰러진 여인이 있다. 바깥은 불바다 아비 규환이다. 이쪽 암페라 위에서 애기가 깨어 운다. 여전히 잠잠한 어머니, 천지를 뒤덮는 듯한 처절한 음향도 어머니의 정신을 돌리지는 못하는 모양이다. 갑자기 천막 안이 확 밝아진다. 애기의 울음 소리가 소스라쳤다. 이내 멎는다. 불의 광란——

소름이 쪽 끼쳤다. 벌떡 일어나 한달음으로 아래층으로 뛰어내려 갔다.

상점에서는 여전히들 분주했다. 누이가 보이지 않았다. 안에 들어갔다 한다.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안도 역시 소란했으나 모두를 상점에 있는지 누이 외에는 아무도 없다.

누이를 보자 선 채 선언이나 하듯 말을 던졌다.

"누님, 그 여자 내가 죽였어요. 타 죽은 것 아냐."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누이가 거의 반사적으로 소리를 치며 일어난다. 얼굴이 창백하다. 눈이 들떠 있었다.

"넌 넌 넌……."

자꾸만 더듬는다. 누이의 흥분을 보자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아 왔다.

"누님은 구더기 같은 창년 줄 알지만……."

하고 누이를 노렸다. 말을 꺼내고 보니 얘기가 술술 나왔다. 두 사람이 다 선 채였다.

얘기가 끝나자 듣고 있던 누이가 오히려 피로한 듯한 숨을 내뿜었다.

"그건 네가 한 게 아냐."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죠."

"아냐 아냐, 넌 넌 그렇게 되어 있었어. 그걸루 그걸루 때워 버린 거야."

"때우다니 때우다니, 뭐 뭣을……."

말이 같이 더듬어 나왔다. 무서운 예감이 등살에 칼같이 꽉 꽂혔다.

"으으으……."

하고 싶던 말이 신음(呻吟)으로 흘렀다.

"그럼 그럼, 그랬던 거야."

누이의 말이 악마의 환호성같이 들렸다.

무엇이 그럼이고 무엇을 그랬단 말인가? 무서운 일이었으나 짐작이 가는 것이다.

"우리가 할 노릇은 다 했다. 너두 생각나겠지만 어머닌 약하시구…… 내가 이 손으로 모든 것을, 좋다는 일은 다아 했었다."

누이의 음성은 이제 가라앉아 있었다.

"백날 안에 남저고리두 일곱 벌 해 입히구……."

남의 일같이 빈정대는 입가에 자꾸만 경련이 일었다.

"그럼 그걸 빠쳤겠니?"

누이가 태연히 받았다. 눈이 번들거렸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실현이나 된 것같이 광열적인 얼굴이었다.

북받쳐 오르는 분노, 있는 대로의 벽마다에 머리를 부딪쳐 부숴 버리고 싶었다.

모든 것을 이제야 안 것이다. 막연히 느껴 오던 그 거미줄에 얽힌 것 같은 느낌, 언제나 문턱에서 거절당하는 인생에의 참가, 남들의 일상(日常)이 그리도 어려웠던 일들——그렇다. 한벌 한벌의 남저고리가 입혀질 때마다 한 인격으로부터 자유와 주체성을 박탈해 간 것이다.

숨이 가빠 왔다. 어디로든 우선 그 곳을 떠야 했다. 발에 무엇인가가 걸리는 것을 아무렇게나 차 버리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달은 없으나 창 너머 바라보는 밤하늘에 별이 차갑게 빛나고 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못 오는 별빛, 저만치 북쪽 하늘에 돋아난 일곱 개의 보석들, 아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오해가 저 별들을 두고 이어져 왔던 것인가.

사람은 저마다의 별을 가지고 왔다고 들려준 옛이야기들, 별을 두고 점친 옛 철인들——그러나 오늘의 과학이 그런 일들을 황당하다고 일러준다 하더라도, 어쩌면 오늘 밝혀진 진실이라는 것이 실은 새로운 오류(誤謬)일지도 모른다. 다만 알려진 범주 안에서의 진실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다. 이제 착각을 두려워하고 싶지는 않다. 자학이 아니다. 양심의 가책에 못 이겨 벌을 받음으로써 죄를 한정(限定)시키고 싶었던 것만도 아닌 성싶다.

영호를 낳던 그 더운 날의 광경이 눈앞에 떠오른다. 이윽고 그 깨끗한 어린 몸에 입혀졌던 남저고리, 앞으로 올 날들이——그에게도 터부가 많이 생기리라. 슬기롭고, 힘이 다른 아이보다 세더라도 골목 대장이 되어선 안 된다. 골목 대장이란 억세고 잔인성을 가지는 것이 일쑤니까. 그리하여 이니셔티브를 잃어버리리라.

무엇에든 흥미와 탐구심을 가져 사물의 있는 모습을 알고 싶어해

도 안 된다. 장난감이라든가, 기계 같은 것의 구조가 알고 싶어 그것을 뜯기라도 해 보라. 어른들은 그런 행위에 흉행(兇行)의 징조를 보고 기겁하여 말릴 것이다. 아이는 모르는 사이에 사물에 대한 관심을 잃고 밍숭하고 착한 아이가 되어 버리리라.

이리하여 그는 건강한 인생의 제수(除數)가 될 수는 없어진다. 이윽고 어느 날 자각(自覺)이 와서 자기가 객체(客體)에 지나지 않는 것에 놀랄 것이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고 미망(迷妄)의 뿌리는 깊어,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이 어느덧 자기가 선 자리를 헐어 버린 것을 알게 되리라——

어둠에 익은 눈에 이 음산한 건물을 에워싸 둘려진, 더욱 음산한 높은 담들이 보인다. 차가운 겨울 별 하늘 아래 컴컴하게, 마치 밤 자체가 결정(結晶)이나 된 것처럼 흉흉하게 서 있는 담——이 안에서는 인간의 죄가 상품으로 바뀌어진다. 얼마만큼의 죄에는 얼마만큼의 형기(刑期)——사람들은 그것으로 양심에서 풀려 나와 지금쯤은 저마다 찬 마루 위에서 고달픈 대로 깊은 잠에 들어 있을 것이다. 양심은 사람을 재워 주지 않아도, 벌을 받았다는 의식은 사람을 재울 수 있는 것이니까. 증거 불충분이라 오히려 정신 상태를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일로 자수를 하다니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자살 행위라고 펄펄들 뛰었다.

그러나 죽는다는 것은 받는 것이지만 자살한다는 것은 행위(行爲)다. 자신으로서의 행위를 갖고 싶은 것이다. 설사 범행(犯行)은 없었다 할지라도 그날 밤 그녀에게라기보다 그녀의 거절이 연상시킨 모든 것에 대한 살의(殺意)와 그 결과에 대하여 당당히 책임을 지려는 것이다.

약혼자의 곤경, 누이의 통곡, 그런 것도 이제 와서 이 마음을 굽힐 수는 없다.

푸른 수의를 두른 미결수, 한동안 만날 길도 없었으나, 들은 바에 의하면 누이도 병상의 사람이라 한다.

그렇다. 사제(司祭)도 지쳤다. 악마의 말을 빌린 미사도 이제 끝난 것이다. 이윽고 할 일을 다한 사람같이 평온한 마음, 죽음과 삶에서 동시에 해방된 마음——쉬고 싶다.

철창 이쪽에 끼워져 있는 창 유리에 겨울 밤이 빙화(氷花)를 얼리는 소리를 들으며 언젠가 읽은 불란서 상징파 시인의 시 구절이 떠올랐다.

나를 잠재워 다오.
그대로의 잠을 재워 다오.

(1958. 2.)